

월간 충현

선교·교구성장의달
9·10
1984



종이 선교사

전자 미디어는 사실 그대로 공중에 날아가는 바람과 같고, 강에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어서 다시 보거나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자 미디어의 중요성은 시청자에게 어떤 문제에 자극을 준다.

즉 시청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주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청자가 자기들의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해결을 짓기 위해 서적을 구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 미디어와 활자 미디어의 공동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서적은 바람이나 물과 같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서적은 언제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번 읽어서 얻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재독 삼독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표를 해 두었다가 얼마든지 자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서적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동서고금의 유명한 저자들을 그들의 글을 통해서 언제나 만날 수가 있다.

모든 서적이 다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 서적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서적을 종이 위에 선교의 내용을 실어서 내 보낸다는 뜻에서 '종이 선교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출판 활동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최초의 문서선교사업은 1890년 6월 25일에 조선성교서회라는 기관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기독교서회의 모체이다.

한국교회가 문서선교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갑오경장(1894년) 이후로 국내의 정세는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고종 황제 때에 개화당 일파가 투옥 혹은 학살되었는데 당시에 투옥된 고관 명사들 중에는 이상재, 이승만, 김린 등 여러 사람이 있었다. 이 때에 배재학당의 교장이었던 벅커 목사를 중심으로 몇몇 선교사들이 일주에 한번씩 옥중의 지사들을 방문하여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나누어 주고 설교한 결과 마침내 그들이 서적을 통하여 심오한 이치를 깨닫고 12명이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그 중에 이상재, 이승만 같은 분이 교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전도역사 특히 문서선교 역사에 특기할 만한 사실로 한국문서선교 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을 느끼고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총현교회는 그동안 방송선교와 문서선교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총현교회 10년사, 20년사, 25년사를 위시하여, 유년부 공과, 초등부 공과를 개발한 것이 총회적으로 십수년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집이 제 2 집까지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그리고 매월 '월간 총현'을 1만 2천부, 격주로 '총현의말씀'을 5천부씩 발행하여 널리 배포하여 문서선교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총현교회가 새 예배당에 이사를 왔고,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총현교회와 한국교회는 더 많은 '종이 선교사'를 국내외에 파송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성근 목사(주간)

1984/9·10 차례

- | | |
|------------------------------------|---|
| 2 권두언 / 이성근
종이 선교사 | 18 여행기 / 이두란
성경에 기록된 곳을 찾아서 |
| 4 이달의 말씀 / 김창인
조상 제사와 효도 | 21 창글에서 온 편지 / 이주태
사망의 골짜기에서 느낀 주님의 손길 |
| 6 특집 / 김창근
교구성장을 위한 목회방안 | 23 논단 / 손경수
교회설립 31주년을 맞으며 |
| 10 북한선교 / 조준상
민족복음화를 위한 북한선교 | 24 전도보고 / 전도위원회
병원-황금어장 |
| 12 기도의 사람 / 김명혁
브레이너드 | 26 생활간증 수기 / 이대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 |
| 14 찬송가 해설과 감상 / 김영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28 선교지 소식 |
| 15 충현 칼럼 / 조선근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것 | 30 교회소식 |
| 16 초대 취재 / 편집실
장철과 송승민 | 33 교우동정 |
| | 34 11월의 행사
편집후기 |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2권 제7호 통권123호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임
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
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조상 제사와 효도

시편 106편 28-29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해마다 추석이나
가오면 조상에 대한 제사가 문제가 되어 특
히 새로 믿는 신자들이 집안 간에서 어려움을 겪
는데 '조상제사가 과연 효도인가'라는 문제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조상숭배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 원수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
하고 마귀의 종도가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절대로 못하고 또 채물
로 썼던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먹어
도 삽니다. 마귀에게 바쳤던 제물은 아예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조상숭배에
대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특수하게 영혼을 지어주
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신자로 있을 때에 예수님
이 재림하시면 자신의 몸은 변하여 예수님의 신령
한 몸처럼 성스럽게 되고, 자신이 죽은 후에 예수
님이 오시면 그 몸은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영광스
럽게 부활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안믿던 사람은 지옥엘 갑니다. 잘 믿
으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땅에 매장
하였고 영혼은 천국에 가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마
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셨던 부모님이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음력 정월 초하룻날이나 팔월 추석이면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사진 앞에 음식을 만들어 놓
고 제사를 드린다고 절을 합니다. 이것이 조상 앞
에 효도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는 우
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한국 사람은 오래 전부터 영혼이 있는 것을 믿어
온 백성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것
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사제사라는 제사를 드렸습니
다. 세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놓고, 찰싹 세 켄레
를 삼아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황천 길에는 칼티고개 불티고개 활티고개가 있
사오니, 이 말은 황천 가는 길에는 활촉이 왔다 갔
다 하는 활티고개, 불이 활활 타는 불티고개, 칼이
번쩍이는 칼티고개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보낸 사
자가 와서 이 밥 한 그릇을 든든히 먹고, 새 신을
든든히 신고 칼티고개, 불티고개, 활티고개를 무
사히 통과해서 옥황상제가 있는 좋은 곳으로 이 영
혼을 잘 인도해 줍쇼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사
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
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개는 좋은 일
을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는 좋은데 갔을꺼야, 아무
개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지옥에 가도 아랫목에 갔
을꺼야" 이것이 수백년 전부터 전해 온 말로서 영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상을 섬긴다면서 사진을 놓고 그 앞
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한 번 하고 절하는 것
이 조상에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
다.

『저희가 또 바알브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윤행하였도다』

(사 106 : 28 - 29)



김 장인 목사(당회장)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갈 곳으로 이미 갔으니 사진 앞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헛수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악마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벌받을 무서운 죄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악마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이 세상 떠난 날을 무섭하게 지내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효도하는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잘 모셔야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크게 지내며 효자인양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때에 자기의 아들 딸을 키우는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바치면 효자 안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부들은 딸을 키우는 정성의 10분의 1만 시어머니께 바치면 상당한 효도이지요.

• **둘째로** 부모님께 전도하여야 효도입니다.

아니 믿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병들어 오래 앓으실 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 **세째로**,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지나면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모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추모는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 놀음입니다.

추모예배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네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첫째**, 추모예배는 고인이 하신 일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을 찾아 보고, 좋은 일은 자손들이 이어야 하고, 잘못된 일은 자손들이 이를 악물고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생전에 하신 일을 검토해 보는 시간입니다.

• **둘째**, 추모예배는 고인이 된 부모님이 내게 부탁하신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 **세째**, 추모예배는 부모님이 세상 떠난지 1년 동안 내가 부모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실천했나, 못했나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 **네째**, 추모예배는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부모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앞으로는 바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내용이 없는 추모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세상 떠난 날이니까 모이는가 보다' 하고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 **그분의 살았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던가** • **그 분의 교훈이 무엇이셨던가** • **내가 그 교훈대로 살고 있었는가** • **오늘부터 바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추모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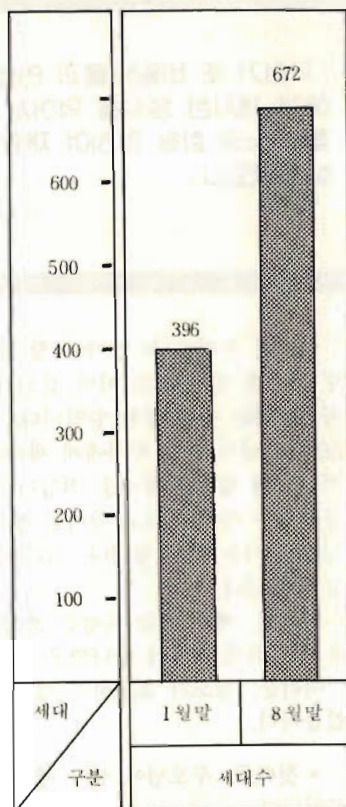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전도하여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드리고, 세상 떠난 후에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살아 계시는 부모를 천대하고 박대하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는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좀 하고는 술 마시고 싸우는 것이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쁜 풍속은 앞으로 한국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교구성장을 위한 목회방안



김창근 목사
(I 교구 담임교역자)



증가원인	감소원인	증가	감소
이사온 44	이 사 감 8	(+)36	(-)276
등록 264	별세및제적 24	(+)240	세대
계 308	계 32	(+)276	

표 1) 교인(세대) 증가요인

교구 성장은 교회성장의 밑거름이요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근본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성령님의 간곡한 소원이며, 사역의 목표이다. 이와같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구역의 조직과 운영은 교회조직의 핵이 되며 세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주의 법칙 속에서 살고있는 생명체는 세포분열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고 배가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84년도의 교회 목표를 1만세대, 1,500구역으로 세웠고, 1교구에서는 1,000세대의 목표 아래 교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의 땀흘리는 수고가 있었다. 더우기 지난 4월 22일 새성전이 1교구가 있는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성장의 가속화를 기하여, 1월의 396세대에서 8월까지 672세대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다.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대 증가 요인으로

는 거의가 새신자 등록임을 알수 있다.

I. 교구운영의 원칙

- (1) 기도의 정병으로 양성한다
새벽기도회 참석을 생활화하여 기도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
- (2) 말씀으로 실력있는 성도로 교육한다.
구역봉사자는 물론 전 성도로 하여금 주일학교나 주간 성경공

부 및 직분자의 교육 등 1과목 이상 수강하여 말씀의 실력을 쌓는다.

(3) 교회중심의 생활로 훈련시킨다

교회 인접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하루 한번이상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활을 갖도록 훈련한다.

(4) 한영혼 구원의 불타는 심령을 갖도록 한다

얕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1구역이 월 1세대이상 전도 등록시키도록 한다.

(5) 새교우 양육에 정성을 쏟는다

전도하여 얻은 귀한 영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사랑으로 보호 육성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 ① 새교우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 ②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아들 읽고 듣고 준행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친다.
- ③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음을 인식시키며 새신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실천하는 생활로 이끌어준다.
- ④ 교회의 각종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구역에서 잘 이끌어 준다.
- ⑤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한다. 완벽하고 성숙된 교인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이 전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새신자를 양육함에 있어 교구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성으로 보살피도록 한다.

특히 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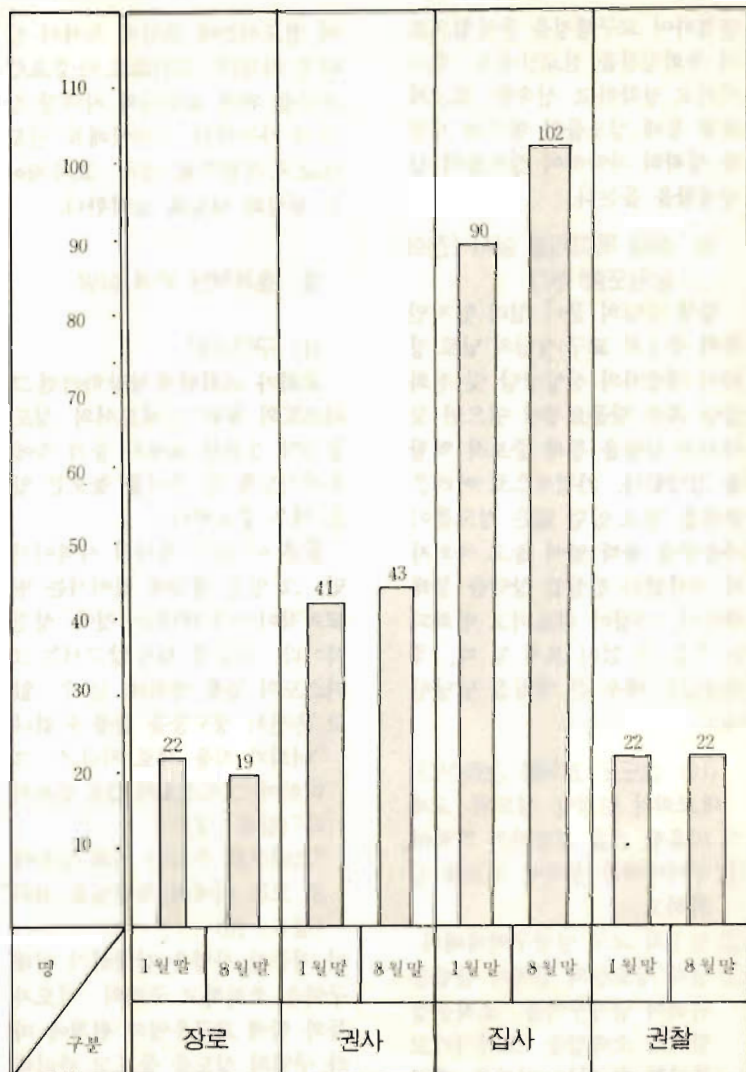


표 2) 1 교구 제직현황

'84. 8월말현재

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지금까지의 관습과 인식, 이단의 미혹과 주위환경과 여건을 통해 넘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영적 어린이와 같은 새신자들을 구체적이고, 자상한 지도와 보호로 돌보도록 한다.

(6) 가정복음화를 위해 진력한다

불신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한다.

(7) 봉사하는 교인으로 훈련시킨다

한 사람이 한 부서씩 시간, 물질, 재능을 바쳐 봉사하는 교인으로 양육한다.

(8) 교구 행정체제를 확립한다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교구 담당 교역자와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권찰이 일치

단결하여 교구행정을 운영함으로써 목회방침을 전교인에게 주지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체제를 통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다.

(9) 상담 목회제를 실시 (전화 상담포함) 한다

항상 상담의 문이 열려 있지만, 특히 주 1회 교구 상담의 날로 정하여 내방자의 신앙상담 및 전화상담 혹은 방문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 놓고 목회자와 격의없는 진실한 상담을 통해 개인이, 가정이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을 수 없이 보게 될 때, 목회상담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다.

(10) 성도의 교재를 강화한다

대교회의 단점인 성도의 교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① 구역예배를 통하여 친교를 강화하고
- ② 월 1회 교구 연합구역예배와
- ③ 남자 성도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남자구역을 조직운영함으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년 1회 야외예배와 산상기도회를 실시하여 온 가족이 참여하도록 한다.

II. 효과적인 구역예배 운영

구역의 활성화는 구역심방과 구역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볼 때, 구역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구역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며, 여기에 따른 성경공부, 성도의 교제, 교회에 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웃의 불신자를 초청하

여 전도하는데 모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모임을 위해 교역자와 지역장 장로가 가능한한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독려함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III. 효과적인 구역 심방

(1) 구역운영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들간의 건전한 교제와 융화 속에 봉사하도록 양 무리를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일은 목사의 사역이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범 교회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없고 온전히 성도들을 돌볼 수 없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 : 2)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일을 하되”(갈 6 : 10)

이 귀중한 사명은 감당하기 위해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교구운영의 원칙에 따라 구역의 성도를 돌보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2) 구역심방

1) 심방의 중요성

구역심방은 구역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심방을 통하여 가정 형편을 파악하고 신앙 성장을 도우며, 전도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낙담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일은 심방의 기원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찾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의 심방,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어 지금도 우리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

구 분	3월초	8월말
세 대 수	4,457	5,135
세 레	5,973	6,211
아 세	1,020	1,040
입 교	530	529
학 습	787	824
원 입	1,950	2,530
교인총수	10,260	11,134
등록교인		1,023

표 3) 구역권찰회 교인 현황통계 일람표

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신령한 심방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도 심방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으며(행15 : 36; 18 : 23) 한국교회의 부흥도 새벽기도와 심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때, 목회에 있어 심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 심방의 목적

- 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일(롬 1 : 11)과 그리스도의 총명한 축복(롬15 : 29)을 가지고 가서 구역의 가정들에게 나누주기 위함이다.
- ②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이다.(롬 1 : 11-13) 시험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 권면하여 믿음을 굳게 해주는 일이다.
- ③ 서로 안위를 얻게 하는 일이다(롬 1 : 11-13) 심방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사랑의 헌신이다.
- ④ 신령한 열매 맺기 위함이다(롬 1 : 11-13) 구역심방은 구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도가 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령사업이다.

3) 심방을 위한 준비

① 기도로 준비

심방자는 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자신의 영력(靈力) 향상과 심방 만을 가정

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② 말씀준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의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③ 생활 속에서 덕행으로 준비
구역 식구들에게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구역 식구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게 되면, 심방을 열심히 한다 해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

④ 적시 안타의 심방이 필요하다

꼭 필요할 때 알맞은 심방의 효과는 실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

⑤ 구역카드, 교패, 태신자 전도카드, 구역 보고서를 심방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4) 심방자의 유의사항

① 예절바른 자세

인사는 친절하고 다정하면서도 정중하고 품위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② 지혜로운 대화

심방은 마음과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됨으로 분위기에 맞는 대화, 서로 유익한 대화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④ 상대방의 부안을 주는 언행, 수사관 어조의 질문, 적절적인 언행은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⑤ 심방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30분 내외로 하고 좌석도 지혜롭게 정해 앉는다.

⑥ 주인의 허락없이 기물에 손을 대거나 상행위, 금전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⑦ 심방시 말지 않는 식구를 만나도 집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전도의 기회를 살아야 한다.

⑧ 교회의 어려운 문제나 남의

허물되는 일을 일체 입 밖에 내어서는 안된다.

⑨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성급히 뽑아 버리려는 자세는 금물이다.

⑩ 구역원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⑪ 심방시 외출중 일때는 메모를 해놓고 온다.

IV. 효과적인 구역전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복음의 빛진 성도로서 마땅히 힘써 행해야 할 일이다. 특히 가정과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구역을 통한 전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구역 전도를 위해서

1) 매 주 금요일은 '구역전도의 날'로 정하여 축호전도 및 노방전도에 힘쓴다.

2) 구역예배시 이웃을 초대하는 초청전에 힘쓴다.

3) 태신자 연결 심방전도에 힘쓴다.

4) 월 1회 70인 전도대회의 지원을 받아 집중 전도하여 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전도집회시에 구역식구가 총동원되어 전도에 힘쓴다.

5) 평소 이웃사람을 전도할 목표로 하고 전교에 힘쓴다.

6)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게 한다.

〈결언〉

지금까지 교구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몇가지로 나누어 열거했는데, 이 모든 조직과 행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교구」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팔미암아 구역

자와 온 교구의 제직과 성도들이 한 가족 처럼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피차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되는 역사가 교구마다 뜨겁게 불 붙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교인이 말씀과 기도로 (엡 6:12) 무장하여야 한다.

말씀의 산지식 없이 양떼를 온전히 돌아볼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없다.

또한 기도없이 성령님의 능력 받을 수 없으며 성령님 떠난 목회계획은 힘만 들고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끄럼 없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구성장은 물론 교회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교우는

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분이나, 교회생활을 해 온 분 중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새우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매주일 2부예배후 11시 30분 (1부, 3부예배후 1시 30분에 교육관 212호에서 6개월 기간으로 공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 적절한 시간을 택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친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장년새선자부)

민족복음화를 위한 북한선교

조 준상 목사

(북한선교원 지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여러 성도님들과 임역원들이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굳건하게 일하던 북한선교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높이 드셔서 내외적으로도 많은 부흥을 주셨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북한선교 총사령관이시며 총현교회 당회장이신 김창인 목사님의 지도와 눈물어린 수고와, 세제는 여러가지 역경과 싸우며 헌신한 임역원들의 수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면 된다」는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와 같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가 된줄 압니다.

1. 사업목표와 방향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동남아를, 모래는 전세계를, 우리의 손에 맡기소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있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재성구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로 정하고, 찬

송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로 정하였습니다.

2. 힘있는 북한선교

일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특히 네가지 힘을 기르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력입니다. 영력없이 신앙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 공부를 통한 은혜에 주력하여 성경암송과 찬송가 가사를 암송하여 부르기와 늘 기도하여 생활하는 기도생활화에 힘쓰려고 합니다.

월요일 정기집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본당 지하실에서 조직적인 성경공부에 주력하고, 금요일 철야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30에 본당 지하실에서 열려 기도예 주력하며, 주일 임원·지도자 훈련은 매주 오후 3:00~4:30 교육관 103호실에서 임원으로 봉사할 일꾼 양성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기도·찬양·전도를 하여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력배양

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인력입니다. 인력이란 많은 성도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불도 잔가지 굵은 나무등 많이 있어야 잘 불듯이 질적, 양적 숫자가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선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만 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집회 3,000명 금요집회 7,000명 그리고 전체 회원 30,000명을 목표로 하여 일하려고 합니다. 일을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출석을 강조하여 인도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영적메뉴 개발에 힘쓰며, 외부강사도 적극 초대하여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며, 그리고 은혜 받게 하며 나아가서는 봉사하는 성도로 만들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째는 재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력도 필요합니다. 선한 사업 특히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명령 감당하는 일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사업으로 북한선교 후원회를 적극 신장하여 매월 1,0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목표하여, 전화원이 다 이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째는 조직력입니다.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력이 있고, 개인적으로 뛰어난 영력을 가

졌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제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연대조직과 지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도급 임원들을 특별히 교육하여 이를 감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한 친목과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이 조직을 더 잘 다지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할렐루야 아멘」지를 매월 발행하여 북한선교에 대한 제반 홍보와 유기적인 조직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3. 일하는 북한선교

이렇게 영력 인력 재력 조직력의 힘을 기르고 난 후에, 다섯가지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데 힘쓰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 그래서 가정 일에 성실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책임 충성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둘째, 민족복음화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민족복음화가 북한선교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휴전선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기에 이 일을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전도와 지방연합집회를 하며, 군복음화를 위하여 삼군사관생도훈련과 군종사병훈련에 힘쓰며, 교회부흥을 위하여 목회자 경건훈련, 사모 경건훈련, 사찰과 평신도 경건훈련을 하여 지교회

부흥과 지역복음화에 힘쓰려고 합니다.

세째는 북한선교사업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방송 설교와 찬양을 통하여 전도에 힘쓰며 최전방에서 시무하는 군중활동을 지원하는데 힘쓰려고 합니다. 특히 설교와 찬송이 수록된 테이프와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째, 세계선교하는 일을 협조하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을 기도와 물질로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6년도와 88년도에 있을 올림픽 전후에 복음선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훈련원 시설확장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덕송리불암산 10만평 대지 위에 대성전과 수만명 수용하는 잔디구장과 그리고 각종 시설을 구비하며, 정선에 있는 훈련장은 야영 훈련장으로, 그리고 임원, 지도자들의 수양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하며, 얼마나 눈물과 땀과 온 정성을 다하여 투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총사령관 김

창인 목사님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한 체제를 정립하여, 일로 매진할 때, 과거에도 큰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자신과 환경만 보지 말고, 일을 맡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침묵하지시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 민족을 사랑하심과 북한선교에 대한 자기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 고 모 집

월간충현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앙월간지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체험이 담긴 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필이외도 재언이나 독후감등의 원고도 받습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때는 연락처 및 소속과 나이를 기록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충현교회 월간충현 담당자 앞 (신교관 201호실)

○내용 및 매수: 자유롭게 8매 전후

절망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런데 깊은 신음 가운데서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런 경험을 하였다. 그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기쁨에 넘쳤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삼켜 버린 듯한 기쁨을 체험했다.

이와같은 개종 체험 이후부터 브레이너드는 전적으로 기도에 파묻힌 삶을 살았다. 그는 개종 후 자기의 기도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온 종일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지냈다. 특별히 저녁 기도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놀랍도록 새로운 힘을 부여하여 주셨다. 오! 하나님과의 한 시간의 기도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능가하고도 남는구나!” 브레이너드는 24번째 생일을 맞은 1742년 4월 20일에 그의 기도생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바로 이 때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때였고 인디안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던 때였다. “나는 이 하루를 금식과 기도로 바치기로 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 정오에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 밑 서늘한 바람 속에서도 맘을 흘리며 기도했다. 밤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의 영혼은 쏟아져 버렸다. 밤이 맞도록 원수와 싸우는 뜨거운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전에도 이렇게 간절히 가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온전히 불사르기를 소원하였다”

1742년에 기록된 다른 한편의 일기는 브레이너드의 생활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에 파묻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일찍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오! 나의 보배로우신 주님, 오! 보배로우신 주님”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기만 하였다. 두 시간 동안 깊은 기도에 빠졌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는 것 뿐이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보배로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쾌락이 추하게만 보여졌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조약돌처럼 보여졌다”

브레이너드는 24세 되던 해인 1742년 여름부터 카우나우미-크(Kanaumek)의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6세 되던 1744년 6월에

는 뉴욕 장로회로부터는 델라웨어(Delaware)의 인디안들에게 파송되어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의 선교 사역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기도생활은 더욱 뜨거워졌다. “인디안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애가 탔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명상하고 기도와 금식에 내 몸을 맡겼다. 밤이 맞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다” 브레이너드는 날마다의 생활을 거의 기도에 파묻혀 보냈다. 새벽에, 저녁에, 밤에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때로는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교만을 자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말을 타고 숲 속을 지나다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도 하였다. “오! 주님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옵소서!”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작년에는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은 이방인들의 개종뿐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살기를 원한다”

브레이너드가 27세 되던 1745년은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한 절망적인 해였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그의 설교는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폐결핵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의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 머리, 얼굴, 치아, 가슴, 위 등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때로 하나님과 끌어진 듯한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는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까지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와같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1745년) 그는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내가 크로스윙성(Crossweeksung)의 인디안을 방문했을 때 내 가슴은 절망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와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셨다. 약한 중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였다. 내가 인디안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의 수는 65명 정도였는데, 그들의 얼굴에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바람같이 임재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능력에 나는 놀라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세력은 강한 소나기나 홍수의 물결 같았다.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다. 모두가 커다란 슬픔에 사로 잡혔다. 이와 같은 일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다. ...

이튿날 인디안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놀람도록 부드러웠다. 그들의 영혼을 향한 몇 마디 말에 모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심지어 흐느끼며 신음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기절하는 일이나 넘어지는 일이나 실신하는 일이나 환상에 사로 잡히는 잘못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브레이너드는 이와 같은 ‘은혜의 소나기’가 1년 동안 계속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고 형제의 사랑이 넘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기도로 녹아졌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28세 되던 1746년 가을부터 그가 죽게 되는 1747년에 이르는 동안 그의 육신은 완전히 쇠약해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피를 토하며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선교지를 떠나 노스햄튼(Northampton)에 있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마지막 몇 달 동안도 그냥 누워서 지내지 않았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였고 성경을 읽었으며 일기를 썼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지금 영원의 세계를 분명히 보고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기도에 맡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명상하라...나는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 전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전국으로 가는 것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만이 나의 부르짖음이요, 탄식이요, 소원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약혼녀인 요나단 에드워드의 딸 제루샤(Jerusha)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나는 그대와 차마 이별할 수 없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영원을 함께 누릴 것이요”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의 영혼은 오늘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긴다.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도 갈망해왔었다. 나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는 1747년 10월 9일 2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

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브레이너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브레이너드는 헌신된 삶의 본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그의 삶을 깊이 모방해야 하겠다”

요한 웨슬레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모든 설교자는 브레이너드 생애를 세밀히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본 받자.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브레이너드에게 주셨던 기도의 삶을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이와같은 기도로 참된 부흥과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찬송가 해설과 감상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331 장 -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컬크 패트릭(W. J. Kirkpatrick)은 183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워 피리, 플룻, 바이올린, 첼로등 여러가지 악기를 다루었다. 교회음악에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1878년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사업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교회음악을 위해 바쳤다. 많은 작곡곡 외에도 그는 100종 이상의 복음 성가집을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편집 발행했다.

어느날 컬크패트릭씨는 어떤 시골교회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독창자가 독창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불렀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는 못했으며 은혜스럽지는 못했던 것이다. 컬크패트릭씨는 이 독창자를 위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는 찬송을 지어내어 그 사람에게 주었다. 찬송을 받은 독창자는 열심히 부르던 중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며 부르게 되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 찬송을 열심으로 반복해서 불러 보면 깊은 은혜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김 영준 (선교성가대 지휘자)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것

조 선근 장로 (충현세계선교회 부회장)

1984년 9월 6일, 우리교회 설립 31주년되는 날이다. 사람의 연령으로 따진다면 31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연상하겠는데, 우리교회의 참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건장한 모습의 교회일까? 오늘 새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비상기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머릿속은 교회 생각으로 꽂차 있었다. 지난 날 그 어려웠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새성전 지하실에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

회고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충현교회를 말할 때 어떤이들은 기적이라고까지 말할을 한다. 그처럼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는가? 펜을 놓고 잠시 생각해도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교회와 함께 하셨다고 보아진다. 이런 점, 우리는 남보다 더 큰,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100년에 비하면 충현의 역사는 짧은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같이 산위에 세운 성처럼 우뚝 둘러워졌다. 서울에서,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가 되었다. 교단·교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반 매스컴에 수없이 오르더니, 세계 교회에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되었다. 바로 지난 해, 미국 83회 세계대회에서는 세계 교회 중 성장한 교회의 한 샘플로 충현교회가 소개된 바 있었다.

대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

7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교회들이 놀라며 부러워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한국교회의 열심을 본받자!”는 말을 하더라고 전한다. 이같은 현상을 어떤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때맞추어 왔다고도 한다. 사람들의 영적 갈구가 많다는가, 휴전선같은 위기의식의 작용이라고도 한다.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일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축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편, 양적인 성장에 질적인 수준이 따르지 못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소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을 교계에서는 신학의 부재니, 기복신앙의 연유니,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진 데서 온 자업자득이니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일반 사회에도 번져,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편견이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다, 개교회주의적이다, 예배당만 크게 짓는다, 헌금을 바르게 못쓴다는 등 큰 교회, 소문난 초대형교회에 대해서일수록 치탄은 더욱 거세다. 불신 사회야 하나님의 일을 잘못 아는 데서 무슨 말인을 못하라는,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지적하는 여러 문제점, 큰 교회에 기대하는 바램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여야 하겠다.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어야

몇해 전, 우리교회 장로님들이 전국에 산재한 20여교회를 순방한 일이 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회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느낀 것은 우리교회는 우리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충현교회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고 또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큰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일을 지어야 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교회 5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성전 건축에 크야말로 한간함을 쏟고 있다. 이름난 재벌도 없는 충현교회가 어떻게 그만한 성전을 짓게 되었는가를 묻기도 한다. 사람의 생각만이라면 너무 힘들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가 바야흐로 제2세기를 맞을 때를 같이하여 우리는 새성전시대에 들어오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로서의 크나큰 일을 바로 질 수 있기 위해 오늘을 극복하고 내일의 한국, 아시아, 아니 세계를 위해 헌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자!’ 세계가 우리를 손짓하고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교회의 영원한 표어를 이 날에 되새겨 보고 싶다.

자랑스런 충현의 어린이

장 철과 송승민

-세계리틀야구 우승의 주역-



(위) 세계리틀야구대회 우승
패를 안고 있는 송승민과 (아
래) 투구하고 난 뒤의 장철
군의 모습



◇...금년 8월 26일 미국 펜실바니아 윌리엄 포트에서 열린 제38회 세계리틀 야구대회에서 14년만에 출전한 한국팀이 출전사상 처음으로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주역이 되었던 자랑스런 충현의 어린이 장철군과 송승민군을 편집실 기자가 잠시 만나 보았다. 이 두 어린이는 도곡국교 4학년 때부터 같이 야구를 시작했으며 작년 전국 국민학교 야구대회와 올 봄, 전국 리틀야구대회의 우승의 주역들이었고, 그래서 금년도 세계리틀야구대회의 주전으로 선발되었다. 이 둘은 세계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 뵈고, 축복기도를 받고서 출국한 믿음의 아들들이었음을 미리 부언한다...◇

만 12세이지만, 1m60cm를 훨씬 넘는 키에 듬직한 체구가 첫 눈에 믿음직스럽게 보이며, 약간은 어린이의 장난기가 어린 얼굴에 웃음을 띄고, 두 어린이가 들어오자, 편집실이 꼭 차는 느낌이었다.

• 반가와요./ 이렇게 만나서,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요?

송승민: 어머니는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다가, 이 곳으로 이사오신 뒤, 우리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구요. 아버지는 믿으신지 오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전에

할렐루야교회에 다녔었고요.

장 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 출국하기 전에 김창인목사님께 기도받고 난 뒤, 마음이 어떠했어요?

송: 우승할 자신이 생겼어요.

장: 저두요.

•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신앙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주셨는지 알아요?

장: 네, 부모님께서 새벽기도와 금식기도도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송: 어머니께서 늘 기도해주세요.

• 지금 중1 년인데, 중등부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선수생활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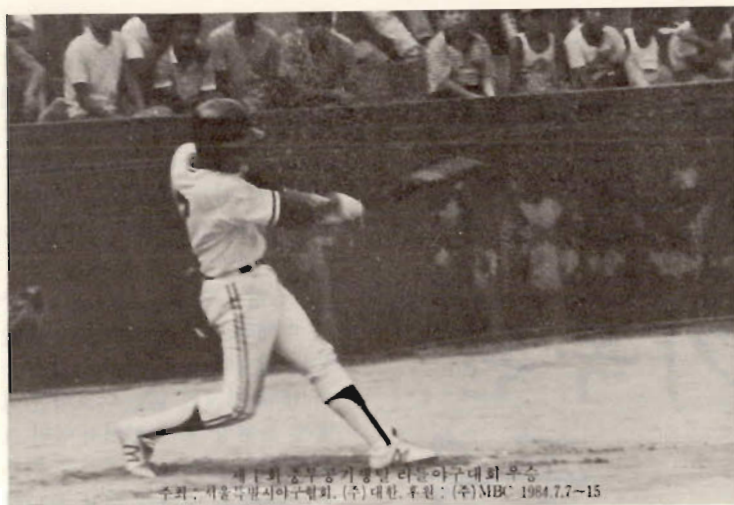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송: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장: 저는 경기 중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가운데서 이야기 해 보세요.

송: 저는 3번 타자였는데, 콧(지역 예선전)에서 일본팀과 대만팀과의 경기 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만팀하고 할 때.



제1회 중부경기평달 리틀야구대회 우승
주최: 서울특별시아구협회, (주)대한, 후원: (주)MBK 1984.7.2~15

(위) 힘차게 볼을 때리는 김타자
송승민군의 스윙폼

장: 저는 캐나다팀과 할 때,

(주: 캐나다팀에게는 투수로서
최대의 명예인 노히트 노런의
99% 완전한 경기를 만들었다)

• 운동선수는 주일에도 시합이 있
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르
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해요?

송: 엄마와 저녁예배라도 꼭 드
리는데, 설교 말씀은 뭐가된
지 몰라서 기도만 하곤해요.

장: 저는 부모님과 함께 1부예
배를 드려요.

• 이번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나
서, 무슨 생각을 먼저 했고 무슨
말을 먼저 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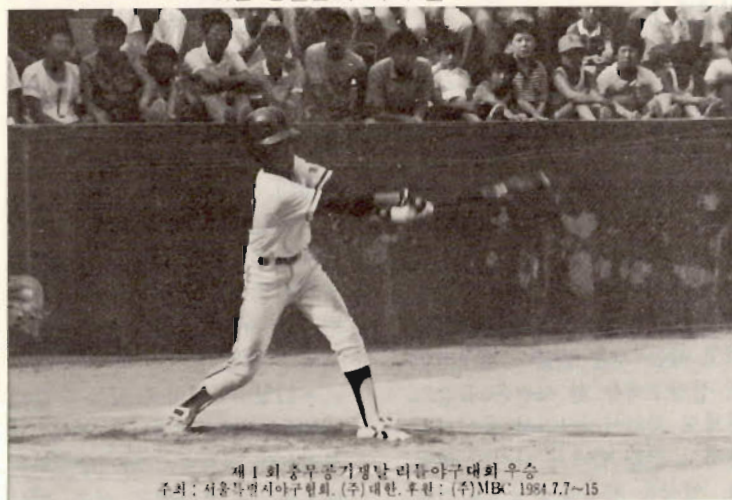
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 도와 주셔서 우승했다고.

송: 기도의 결과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 감독·코치선생님들은 신앙인
이었나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는?

장: 아니요. 그렇지만 잘 대해주
셨어요.

(아래) 타격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는 장철군의 타격 폼



제1회 중부경기평달 리틀야구대회 우승
주최: 서울특별시아구협회, (주)대한, 후원: (주)MBK 1984.7.2~15

송: 밤에 방에서 기도하면, 안 믿
는 친구들은 왜 기도하느냐
곤 했지만, 우리는 기도했어
요.

그런데요, 우리랑 굉장히 친
한 친구가 있는데요, 우승하
면 우리랑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어
요. 꼭 진도할 생각이예요.

(주: 5번 타사이며 캐치로서
장철군과 게임 호흡이 잘 맞는
다는 김광현군이 그 친구라고
한다)

• 야구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장: 이만수 선수요.

송: 김봉연 선수요.

• 끝으로 야구선수로서, 또 신앙
인으로서의 포부를 듣고 싶은데

장: 국가대표선수가 되어서 경기
때마다 우승하여 하나님께 영
광돌리고 싶어요.

송: 국가대표선수가 되어서, 친구
들을 많이 진도하고 싶어요.

• 고마와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
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럼 같이 기
도하고 끝 맺지요.

* 같은 동료가 전해주는 장 철군
의 일화 한 토막*

미국 ABC방송국 기자와의 인터
뷰.

기자: 누구에게 이 소식을 맨 처
음 전하고 싶어요?

장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

기자: 그러면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장철: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그
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의 참 대상을 아는
능숙한 대답이었다.



이두란 전도사
(9교3단임전도사)

성경에 기록된 곳을 찾아서

성지 순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선해 주신 총현 세계선교회와 당회장님, 당회원, 10교구 전도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행한 나라와 도시들

홍콩, 런던, 파리, 브루셀, 암스텔담, 비스바덴, 옴스, 하이델베르크, 쾰른, 제네바, 로마, 아덴, 텔아비브, 예루살렘, 갈릴리, 예일랄 시나산, 카이로, 룩소, 다시 런던으로 동경으로 해서 28일 서울로 돌아왔다.

• 나는 7월 2일 서울을 떠나 홍콩에서 이만렬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홍콩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홍콩의 시내 중심가를 관광하고, 런던으로 향하였다.

다음날인 3일 오전 6시에 런던공항에 도착했다. 날씨가 한국 초겨울 날씨 같이 추웠다. 예정된 버스를 타고 안내자가 우리를 안내하여 예정된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고, 런던시내를 관광한 후, 40년간 걸려 건축하였다는 국회의사당과 대영박물관을 보았다. 박물관 안에 있는 물건들을 팔면 영국 국민이 30년간 일하지 않고 먹어도 돈이 남는다고 안내자가 설명했다.

영국은 1년중 두 달정도 해가 나고 열 달은 안개가 끼고 비가 온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간 날은 안개가 걷히고 해가 나자 복 받은 자들이라고 안내자는 말하였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더니 과연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단정해 보였다. 고대 건물들을 파괴하지 않고 잘 간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웨스터민터 신앙고백을 한 사원은 유감스럽게도 회의시간이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밖에서 사진만 찍었다. 영국은 황실을 중심으로 건축

양식이 발전한 것을 느껴보았다.
• 4일 유럽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 도착해서 1000 년전의 건물인 노트담 성당과 루브르박물관을 보았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미술품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감탄한다고 안내자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 5일 루브르 궁전에서 왕궁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는데 옛날의 문화, 찬란한 예술품에 대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입만 크게 벌렸을 뿐이었다. 파리의 기후는 겨울에도 영하가 없고 영상의 기후만 있어서 잔디밭이 항상 푸르다고 한다. 불란서는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것 같다. 몽마르뜨 언덕, 성심성당을 관광하고 파리 본토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브루셀로 향하였다.

• 6일 브루셀, 나폴레옹의 무덤과 패전한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진 곳을 관광하고 벨지움 김성환 선교사님 두아들과 사모님을 반갑게 만나 일정을 같이 보내면서 유대인이 63,000명이나 집단학살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조상들의 죄값으로 후손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곳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다. 지금도 피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 8일 주일은 비스바덴 한인교회(육호기 선교사 시무)에서 예배를 드렸다. 암스텔담은 운하가 16개가 있고 풍차가 유명한 곳이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어마어마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가보았다.

• 9일에는 옴스로 와서 하이델베르크, 빌라도산을 관광하고 쾰른으로 가서 알프스 정상에 올라 눈과 얼음에 쌓인 아름다운 설악을 보았다.

• 11일, 제네바에 있는 칼빈(John Calvin) 선생의 무덤을 가보았는데 업적과 그의 생애와는 대조적으로 초라했고 작은 비석

만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우리 일행은 칼빈선생의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곳을 떠나왔다.

• 12일 로마로 간 우리 일행은 아덴, 성베드로 대성전, 아테미 신전이며 바울사도가 갇혔던 감옥, 바울사도의 무덤 등 많은 성지자들의 무덤과 12사도의 성전 등지를 다 돌아보고 로마와 아덴 관광을 마치고 고린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로 왔다.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의 살롬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 주일(15일)에는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곳,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던 곳과 산상보훈(마태복음 5장)을 교훈하시던 곳인 감람산(마태복음 24장) 및 유다광야를 구경하고 쿤난 사해에서 목욕을 하고, 마사다, 여리고, 요르단 계곡, 맛기도, 갈릴리바다,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아레오바고, 사도 바울이 변론한 언덕(행17:14~끝절)을 따라 돌산만 남아 있는 나사렛, 갈릴산, 가이사랴와 말라기선지와 학개선지의 무덤, 감람산의 공동묘지를 둘러보았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내려 오시던 길이 이공동묘지와 연결된 길이었고 유대인들이 죽을 때는 감람산에 묻히기를 소원한다고 한다. 솔로몬의 그 웅장하였던 궁전 자리도 이곳 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모슬렘사원이 세워졌다.

갯세마네 정원과 교회 앞에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 열자리에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감람나무가 있어 나는 그 감람나무 잎파리를 만지며 주님께서 비유를 베푸시던 나무라 생각하니 감개무량 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

판을 받으시던 장소(요19:1~)와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시던 곳도 같은 장소라고 안내한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다가 처음 넘어지신 곳이 출발장소와 멀지 않지만, 전날 밤, 심문 받으시느라 시달렸기 때문에 지쳐 넘어지셨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무덤〉

자연그대로가 아니라 산 속의 굴을 보수한 무덤인데 빈 무덤이었다.

이스라엘의 삼대족장의 무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브라함이 천사와 만난 곳을 돌아보았다.

• 18일, 8복산과 베다니 건너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곳을 보았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며, 이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병자를 매달아 내려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던 곳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곳 그리고 갈릴산상에서 엘리야선지가 불로 응답 받은 곳을 보았는데 산 높이가 546미터나 되는데도 버스가 올라간다.

하이파이는 유대인과 아랍인과 같이 사는 도시이다.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이, 삼대도시중 제일 좋은 곳이 하이파이라고 한다.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요청하던 브엘세바 산악에서 로덴나무를 보았다. “태양이 따갑게 내려 쏘이는 광야 길을 40주야를 갔다(왕상19)”고 했는데, 지금은 버스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엘리야가 ‘생명을 취하라’고 한 그 말이 이해되었다. 너무나 따갑게 해가 내려쬐이는 광야 산악지대이었다.

〈예일랄수족관〉

바다 속의 산호와 아름다운 고

기들을 보았다. 예일랄은 이스라엘 땅의 끝이다. 「애굽」 「사우디아」 「요르단」 「예일랄」 네 나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내산〉

21일 밤 1시 30분,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 밑까지 와서 2시에 시내산에 등정하니 아침 해가 떠올랐다. 우리일행은 산의 한 모퉁이에서 예배를 드렸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옵고 10계명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나 같은 사람도 이 곳을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되고 벅찼으며 그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나 생각할 때 죄송하기 그지 없었다. 나는 감사와 회개와 결심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산했다.

우리 일행은 10시경 지정된 버스를 타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길을 가다가 버스가 못간다고 정지했을 때에 나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사막에서 49°도, 50°도 된다고 버스기사가 일러 주던데 여기서 차가 못가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가져간 물도 조금 밖에는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하고 기도하는데 버스가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차가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나는 사막 길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이 이해가 되었다.

오후 6시경 우리의 목적지인 카이로에 도착했다. 다음날 주일 카이로 한인교회(이준교 선교사 시무)에서 예배를 드렸다. 카이로에서 4박5일을 머무르면서 애굽의 고적들을 보았다. 카이로 박물관과 콥트교회 박물관이며 성경원본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이며 많은 유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옥고를 치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왕들의 무덤이며, 모세가 갈대상자에 실려 띄워졌던 그 나일강에서 배를 타고 강가를 돌았다.

예수님이 탄생되고 피난갔던 그 골목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던 그 당시 성전자리에 회교 회당이 자리하고 있다.

애굽은 피라밋(무덤)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였다. 애굽의 역사를 안내자의 설명을 통해 더 자세히 들었다. 역사를 설명해 준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중

결했다고 말했다. 기사에 있는 세 피라밋 중에서도 가장 크고 먼저 건축된 것은 쿠후왕의 피라밋이다. 일명 “카오프스왕”으로 불리운다. 이 왕의 피라밋 규모와 건축기술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정도이다. 피라밋을 짓는데 소요된 돌이 230만개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돌의 무게가 5톤(Ton)에서 큰 것은 15톤이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것이다. 쿠후왕 피라밋 높이는 137미터이다. 이 피라밋의 면적은 로마의 성베드로 사원이나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넓이

같이 느꼈다.

바쁜 일정으로 충분한 기록을 못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쓸 수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28일간 비교적 많은 곳을 돌아보고, 강진하게 무사히 귀국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спен

- 매일 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50분 (토요일 제외) 교회에서 출발
- 매주 수요일, 예배후 9시에 교회에서 출발
- 운행코스 : 충현교회 (새성전) → 잠실 네거리 → 송파 → 성남모란시장 (시외버스정류장) → 기도원

2. 시외버спен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 (20분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спен

- 66번, 57번, 239번버스 타고 성남종합시장앞 하차, 광주행 3번 버스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 행 완행버스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주소〉 130 - 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생령리

〈전화〉 03472 - 2 - 4425



솔로몬 기둥에서

요한 몇가지만 생각나는대로 기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에는 크고 작은 무덤 곧 피라밋이 모두 80여개나 된다고 한다. 대부분 룩소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은 고대왕국 제4왕조 때의 “쿠후왕”과 “카푸레왕” 그리고 “멘카우레왕”의 피라밋인데, 이들 세 피라밋은 모두가 카이로 시내에서 서쪽으로 불과 9마일(Mile) 떨어진 기자벌판에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역사가 “사무엘 샤프”에 의하면 이 피라밋은 그 하나를 건축하는데 근20년씩이나

와 비슷한 정도라고 한다. 이 거대한 피라밋의 중심부에는 커다란 방 곧 내실이 있고, 그 안에는 피라밋의 주인공인 케오프스왕의 미이라가 놓여 있었던 자리에 거대한 석관이 위치하고 있다. 피라밋 건축시대는 애굽 역사에서 본래 고대왕국 제3왕조에서 제6대왕조 때에 해당된다고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그 나라가 그 후손이 잘 될리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지도자의 책임이 이처럼 중한 것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느낀 주님의 손길

먼저 존경하는 총현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님과 모든 총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오며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저는 남멕시코 오하하가 장글 지역에서 미혜부족(MIXE TRIBE)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빠짐없이 보내주시는 월간총현은 저와 제 가족의 영의 양식이 되으며, 특별히 총현교회 선교본부에서 보내주신 김창인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설교집은 언어소통과 영적 교제가 차단된 선교전선에 있는 저에게는 생수처럼 시원하고 꿀처럼 맛이 있어 실제적으로 제 선교활동의 길잡이가 되으며 경건생활의 한 자극제가 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월간총현 담당자와 총현교회 선교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곳 오하하까지는 90% 이상이 광활한 사막과 밀림으로 이루어진 인디안들의 주거 지역이며 밀림전체가 3천여미터 이상의 거대한 산악과 심연으

로 채워져 문자그대로 밀림의 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글용 비행기를 타고 이 오하하가 밀림지역을 횡단해 보면 그야말로 지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한 위성세계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산과 깊은 심연만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데, 수많은 인디안들과 서로 다른 방언을 가진 부족들이 이들 산과 계곡을 경계삼아 동물처럼 버려진 채로 그저 생존해가고 있습니다. 이 오하하가 장글지역에 20여 방언이 쓰여지고 있다는 통계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세기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중앙교회의 파송을 받아, 작년 5월 고국을 떠나와,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계속 밀림을 달리면서 선교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구령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복음의 불씨가 인디안들의 영혼에 점화되어 밀림의 구석구석에서 선교의 불길이 조금

씩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 목표는 미혜부족을 포함하여 온 오하하가 장글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어둠과 죄악과 미신의 장글을 복음과 구원의 장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의 불씨가 인디안들의 영혼에 점화되어 밀림의 구석구석에서 선교의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번은 협약하기로 이름난 멕시코계곡(National Valley)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계곡은 해발 4천미터의 거봉을 넘고 넘은 대 산악들과 2.3km의 아스라한 심연들이 죽음의 사자처럼 출저어 있는 곳으로, 8시간여동안 계속 차를 몰아야 겨우 이 산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천번 계속되는 급커브와 1급경사 길은 일년내내 안개 구름 비 강풍에 잠겨 있으며, 사람은 물론 차조차 잘 다니지 않는 고독과 고통과 위험의 계곡입니다. 일단 차가 계곡으로 미끄러지는 날에는 2.3km가 넘는 심연으로 직선으로 추락

하게 되어 사람도 차도 그대로 밀림의 심연 속에 묻혀 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과 고통의 계곡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하여 도보를 택한다면 일주일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300°(도) 이상을 뱅돌듯이 회전하는 급커브에서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크게 좌우로 움직였으며 산쪽으로 미끄러지다가 다시 도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미 선교차량의 앞바퀴는 아득한 절벽을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차가 조금만 더 미끄러졌더라면, 저와 함께 동행한 한 청년과 선교차량은 형체도 남기지 않고 밀림의 심연 속으로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고 또 순간에 끝났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당할 때에는 자기 아내나 자녀생각 등이 스쳐간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주님만을 불렀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마지막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공포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거나 놀랍게도 저는 평안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불들어 주시는 따뜻하고도 강력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본 것

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를 선교전선에 보내신 대장 예수님께서 참으로 제가 밀림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그의 큰 손으로 안전하게 불들어 주셨습니다.

차가 도로 쪽으로 넘어진 후, 저는 「아멘」하고 차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동행한 청년은 손가락하나 다치지 않았고 저만 팔뚝을 다쳤는데 경상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어나와 아득한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청년에게 “사무엘, 하나님은 불들지 않으셨다면 너와 나는 이미 저 계곡 속에 묻혔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하였더니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저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음이 깨달아졌을 때 제 작은 심장은 너무 기뻐서 터질듯 하였습니다.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과 저를 파송해 놓고 염려 기도하는 광주중앙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밀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면 그들의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했을 때, 또 다시 저는 기쁘고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어릴적부터 유달리도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겨온 한, 저는 다시 한번 제 목숨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독한 밀림 속에서 이제 내 생명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맹세하고 맹세했습니다. 기적의 손으로 다시 허락해 주신 이 생명 전부를 오로지 인디언을 사랑

“ 그 순간에 제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

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바치리라고 입술을 깨물며 맹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보았습니다. 뼈에 새겨져 평생 잊히지 않도록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내 생명이 달려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저의 전부임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사망의 골짜기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저는 또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 경건하여져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교전선에서 기쁨이 충만하고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한 인디언 영혼이 울며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저는 가장 강하여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실 형제들에게 제 어머니님께서 제가 고국을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적어 봉투 속에 넣어주신 시23편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1984. 7. 30

오하하가 선교전선에서

목사 이주태 드림

“ 이미 선교차량의 앞바퀴는 아득한 절벽을 넘었습니다 ”

교회 31주년을 맞으며 설립

손 경수

(안수집사·청년부부장)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1년이 되었다. 지난 1953년 9월 6일(주일) 서울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한명덕 집사댁 2층에서 18명의 교우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충현교회 설립의 효시였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창립 당시로부터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한 당회장 김창인목사를 위시하여 당회원, 권사, 집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충현교회로 성장케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요, 생령님

의 특별사역임을 우리는 믿고 싶다.

이미 우리교회는 4천 5백 세대에 만 2천명의 교세로 확장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충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의 보수와 신실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왔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천국 일꾼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제 충현교회는 지난 4월 역삼동의 새예배당으로 이전함에 따라 강남복음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복음 전략으로 민족복음화 기수가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31주년을 맞는 충현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몇가지 부연코자 한다.

1. 새예배당을 완공해야 한다

약 4년간의 건축 공사로 교육관 및 선교관은 완공되었으나, 아직도 본당 예배당이 완공되지 못하고, 1층 임시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편에 있다.

그간 교회당 건축공사를 위해 온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적 뒷받침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위원들의 노고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공사비 채불로 인해 겪는 아픔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앞에 닥칠 때마다 온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는 지혜를 배웠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위기를 모면케 해주셨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차공사가 빨리 시작되어야 86년엔 준공검사를 필하고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 특별비상기도회를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물질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바라기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정성과 힘을 다해 성전건축이 마무리 되도록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며, 약

속된 건축헌금을 속히 완납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줄 안다.

교회당이 완공되고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짓고, 기뻐하던 그 기쁨을 성전건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이곳에서 세계 기독교대회를 개최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 강남지역에 복음으로 징계를 면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창립당시의 목정·오장동지역에 요리집과 극장이 무너진 터 위에 충현교회가 세워졌듯이 사치와 환락, 그리고 향락산업이 판치고 있는 강남지역에 「충현」이 이전해옴으로, 복음의 물결이 파도쳐 성결된 도시로 변화하는 임무와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명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불신자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새예배당완공은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

2. 민족복음화 및 교육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충현교회의 전도방법과 기독교 교육은 한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워가 실시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0~70년대의 충현교회 기독교 교육은 놀랄만한 커리큘럼과 행정체제로 모든 교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최근엔 그런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나하는 자성도 해본다. 이때까지 장소 협소에 대한 변명이 있었으나 이제 교육관 시설이 완벽하게 성취된 이상 좋은 교육환경 여건 속에서 진취적인 기독교 교육이 필요케 되었다. 또 교세확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배가된 것 같지 않은 듯하다. 금년 목표가 1,500구역 1만 세대였는데 어느 정도 동 목표에 이르렀는지 확실치 알 수 없으나 계획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교세 팽창이 된 것 같지 않았다.

물론 양적 팽창이 교회부흥의 첩경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이만한 시설의 충현교회당이 강남 지역 복음화에 차질을 빚는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교세확장의 저해요소가 무엇인가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복음전략을 구체화함이 타당하다.

3. 기획조정실 운영에 기대해 본다.

비대한 충현교회의 제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기획조정실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본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출범한 「기조실」이 충현교회의 전체적인 인사,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충현교회 5대목표를 달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조정역할을 해야할 줄 안다.

특별히 일원화된 기획조정으로 각부서가 평행발전과 협력체제로 궁극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줄 안다. 또 기획조정실에서 충현교회의 미래상이 구체화 되어 설정되어야 하고, 선교 제2세기를 향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충현」은 6.25이후 세워진 그 당시 교회가 아닌 만큼 성년이 된 「충현」임을 모두가 의식하고 새롭게,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31년을 맞은 「충현」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같이하는 교회, 그리고 설립자의 이념인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병원 - 황금 어장

*지난 9월 20일(목)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병원전도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에 두분 강사의 내용, 이번 모임의 취지와 전도위원회의 병원전도 활동 상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註)

1. 병원전도를 위한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

본교회 전도위원회에서는 본교회 병원전도팀 및 병원 전도인들에게 영적무장과 훈련을 시키고, 아울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병원 전도방법을 모색하여 전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임을 마련했던 것이다.

9월 20일(목) 오후 6시에 대학부 병원 전도팀들인 N.M.C. (국립의료원) 전도팀, 에바다 전도팀, 할리에이스 전도팀과 청년부 병원 전도팀, 소망부 병원 및 보건소 문서 전도팀, 남여 전도회 연합회 임원들, 의료전도단 임원들, 전도위원회 부장단, 외부에서 오신 새롭의료 선교단 원목등 약 50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선교관 403호에서 열렸다.

강의 주제는 「효과적인 병원전도 방법」이었으며 프로그램은 1부는 예배, 2부는 강의로서 「현

병원전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여전도회 6지회가 지원하는 수도국군통합병원의 원목이신 황정숙전도사가 제 1강의를 「바람직한 병원전도 방법」이란 제목으로 한나 여전도회 10지회가 지원하는 강남병원 원목이신 신혹희 전도사가 제 2강의를 담당하였으며, 3부는 「현 병원전도의 애로점과그 대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병원전도가 통괄적으로 체계하고 균형있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모임의 취지인 것이다.

2. 전도위원회의 병원전도 활동상황

① 원목 지원 상황

전도위원회에서는 본부에서 서울대학병원 원목과 국립의료원 원목을, 한나 여전도회 10지회에서 강남병원 원목을, 에스더 여전도회 2지회, 6지회, 7지회, 9지회에서 각각 경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고대병원, 강남병원 원목들을 지원하고 있다.

② 병원 전도팀의 활동 상황

대학부의 N.M.C 전도팀, 에바다 전도팀, 할리에이스 전도팀들이 국립의료원, 이대부속병원, 원자력병원 등을 찬양과 개인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으며 청년

부의 병원 전도팀이 매주 금요일마다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전도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각 전도팀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③ 소망부 문서 전도팀의 활동 상황

80세 되신 장로님과 집사님 9명이 3조로 나누어서 매 주 금요일마다 병원과 보건소와 그 밖의 공공기관을 돌며 전도지 배포와 충현의 말씀과 월간충현을 비치하고 있다.

이 팀이 담당하는 병원은 국립의료원, 이대병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지성병원, 영등포시립병원, 가야병원, 강서병원, 복음병원, 한대병원, 경찰병원, 동부시립병원, 경희의료원, 대한병원, 동부시립병원, 경희의료원, 대한병원, 한라병원, 민중병원, 명동병원, 영동세일병원, 영동병원, 한서병원등 23개병원이며, 보건소는 용산,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성동보건소등 6개 보건소이다.

④ 각 전도회 및 주일 학교의 병원 전도활동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 8지회에서 매월 1회씩 원호병원에 전도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각 전도회에서 수도로 병원 전도를 하고 있다. 각부 주일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 혹은 행사 계획에 의거 병원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3. 병원전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병원전도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목(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들의 신앙 자세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겠다. 병원에 찾아오고 병

상에 누워있는 자들은 심령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의 신앙상태와 처지에 따라 적합한 위로와 권면에 대한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하겠다. 이 환자, 저 환자, 이 병실, 저 병실을 바쁘게 왕래하느라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가 그지 없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세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내가 과거에 신앙의 은사가 충만했다느니 운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없이 지기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여 안수기도나 하려고 돌아다닌다면 그는 이미 원목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네째, 매사에 우선권을 영혼구원에 두어야 한다. 가정의 일등도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영육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육체적 고통에만 동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신앙의 자세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원목활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환자의 영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4. 바람직한 병원전도법

바람직하게 병원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몇가지 말씀 드리려고 한다.

첫째, 병원전도를 하시는 분들

은 병원에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의사, 간호원 직원들로 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내 전도활동을 하는 데 적극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환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그 환자들의 신앙 상태와 처지에 따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세째, 말과 몸가짐에 조심하여야 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다면 격에 맞지 않는 인사다.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 된다면 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되며 또한 환자들을 대하는 말이 온화하고 부드럽려야 한다. 몸가짐도 중요하며 단정한 옷차림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병원목회를 위해서 임상병원전도학이 신학교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정식 학문 분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에 대한 상식이나 환자들의 심리, 환자들을 위한 전도방법 등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병원전도에 뛰어들면 여러가지 마찰과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학교에 일반 목회자나 군목을 배출시키듯이 병원 목회자를 정식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도하는 시간은 길게 갖지 말기 바란다. 3분 정도가 알맞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꼭 두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될 줄 드셨습니까?' '간밤에 잠 주무셨습니까?' 등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 전도를 시작하기 바라면서, 이 지면을 밟아 말씀드리다.

〈전도위원회 제공〉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

— 수재민 수용소에서 —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늘 이맘 때,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라고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랐다. 지금 동네 입구로 물이 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다. 나는 약간 긴장이 됐다. 그러나 내가 거주하는 곳은 2층이기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시간 6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1시간 일찍 퇴근하여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성내천 입구에 이르렀을 때, 안내양이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다. 풍납동 네거리가 물에 잠겨 교통이 차단되었다고 한다. 나는 성내천 밑으로 출렁거리며 흐르는 물살을 보면서 약간의 호기심을 느꼈다.

동네 입구에 다달았을 때, 벌써 물은 나의 무릎까지 왔다. 대문을 널빤지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는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였다. 아기는 아내 등에 업힌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반바지로 갈아 입고 공사장의 모래를 퍼 나르기 시작했다. 온 몸이 땀과 비, 비리고 흙탕물에 범벅이 된채,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계속 모래를 날랐다. 빛은 어두움에 밀려 멀리 사라졌고 사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층 발코니에 올라와 멀리 물이 넘쳐 들어오는 네거리를 바라보고는 방으로 들어와 TV 스위치를 눌렀다. 이때 시간이 저녁 8시였다. 화전담은 수위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고 춘천댐, 청평댐 등에서는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강 하류는 계속 불어나서 성내천 물은 역류하여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는, 12년전 이 동네가 침수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급히 방안에 있는 가재도구와 책들을 다락 위로 올려 놓고 서랍장의 옷들과 이불은 가능한대로 더 높은 곳에 올려 놓았다. 그러면서도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다. 1층이 침수되어 들어가자, 1층 아주머니들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차오르는 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요행을 바라고 기다릴 수 만은 없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망치와 못과 끈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선반 두개를 꺼내서 아기가 타고 나갈 뗏목을 만들어, 그 위에 아기의 목욕통을 올리고, 그속에 아기를 누이고 비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끈으로 동여

매었다. 우리 부부는 당장 필요한 몇가지 증빙서류와 핫이불 2개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풍납동 민원분소 쪽에서 스피카를 통해 무엇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 왔으나 빗소리에 분명하지가 않다. 하지만 대피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는 꺼졌다.

아기를 태운 뗏목이 모세의 갈상자와 같이 물살에 찰랑거리며 떠내려간다. 물이 맨홀로 빠져 들어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엄마 아빠의 소리가 혼합되어 컷 속으로 파고든다.

우리 가족은 새벽 2시 정도에 풍납중학교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500여명의 수재민이 수용되어 있었고, 박진혜 집사님과 문흥구 장로님이 우리 보다 먼저와 계셨다. 박집사님께서 우리가 죽을 위해 자리를 내주셨지만 우리는 혼탁한 공기를 피해 2층으로 거처를 정하였다. 온 몸에서 악취가 풍겨오고 오한을 느꼈다. 학교 화장실에서 몸을 대충 닦고 교실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 온 몸이 피곤하였지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말로만 듣고 신문지상에서나 보아오던 일들이 지금 내게 현실로 찾아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가 막혔다. 만약 물이 옥상까지 다 차버린다면, 내가 그 중에서 건져 낼 것이 무엇인가? 힘들게 마련해 놓은 신혼살림이며, 십수년 동안 모아 놓은 책들과 자료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못쓰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착잡한 심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살

아 온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것도 결혼하고서는, 더욱 더 그랬던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변절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 보아도 그러한 자신의 물음에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었다. 방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구가 벽에 붙어 있는데도 내 어디 진정으로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심정처럼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두려움과 혼돈이 계속되는 순간, 나는 잃어 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나는 거의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자, 나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서 물에 잠긴 거리를 내다 보았다. 물은 밤새 한길 정도가 더 불었다. 그 바람에 학교 1층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은 3층으로 다시 대피하였다. 우리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 지르며 신기해 하는 모습들을 뒤로 두고, 우리 가족은 그곳을 빠져 나와 시영아파트 삼거리로 나왔다.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30년 동안 살았던 충무로 본가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은 이곳의 상황을 관찰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까운 잠실 누님댁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하고 택시를 타고 누님댁으로 찾아갔다. 그곳에다 짐을 풀어 놓고 나는 혼자 풍납동으로 들어갔다. 모든 차량 및 보행이 통제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없이 우성아파트 쪽으로 돌아 유도대학 쪽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곳에서 뗏목 하나를 구해 가지고 집 있는 쪽으로 노를 저었다. 가재도구들이 물 위로 떠 다니는 모습과 염소와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이윽고 우리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집은 창문까지 침수되어 있었다. 나는 뗏목에서 내려 부엌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은 반이 침수되었고 다락까지는 아직 두자반 정도가 남아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다락문을 열어 보았다. 다락속의 물건들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다. 나는 지친 몸과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둠이 온 동네에 깔려 있을 쯤해서 누님 댁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수해지구와 더 가까운 잠실국민학교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수재민 명단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수재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잠실국민학교에 도착했을 때, 필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잠시 후 여전도회 임원들과 이세열 목사님과 현정남 전도사님이 수용소를 방문하시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았다. 여전도회 임원들과 나는 침수지역을 돌아보기 위해 봉고차에 동승하고 풍납동 네거리 가까이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제까지만해도 성내천 뚝을 곧 넘어 버릴 것 같이 불어나던 물이 지금은 몇 군데 웅덩이를 제외하고는 그 자취를 감춰 버린 것이었다. 나는 급히 차 안에서 내려 방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물은 방안 가득히 차있었고 가재도구들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물은 전날 내가 보고 나갔던 그 정도 밖에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방안에 피인 물을 퍼내고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수되어 못

쓰게 된 가재도구들을 하나 둘씩 점검해 보았다. 창장, 서랍장, 냉장고, 세탁기 등이 반정도 침수되었다. 신혼 초에 장농을 마련하지 않은 일이 이때는 참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대학 4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책상과 함께 못 쓰게 된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새삼 유대인들의 지혜가 생각난다. 유대인들은 여행중 호텔을 선택할 때 뒷문이 있는 호텔을 선택하고 집은 될 수 있는 한 높은 지역에 얻는다고 한다. 나는 다시 잠실국민학교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로 도시락 하나씩이 배당되었다. 필권사님과 구역식구들이 마련해 온 김치와 밀반찬을 곁들여 먹으니 밥 맛이 꿀맛이었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 주시는 구역식구들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우리 가족은 몸둘 바를 몰랐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하고 박 집사님의 가족과 함께 학교를 나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물론 앓아 있을 수조차 없는 설정이었다. 나는 먼저 불을 피워 방안을 건조시켰다. 그러는 동안 교회의 여러 분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여 성도의 위로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집은 다 른집 보다 먼저 복구되어 추석이 될 전에 도배를 하고 부엌은 케이트 칠을 새로하여 단장하였다. 아직까지 수해의 여파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물이 빠지고도 여러 날동안 친척집을 배회했던 일을 이제는 안해도 된다. 단지 그들에게 고마움을 확인하며 인사차 찾아 뵙는 일들만 남았을 뿐이다. *

이대길 집사

(구역권찰회 삼일간사)

“ 해외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8월13일 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을 준비중인 말루모 장로교단 총회장 라자와내 박사가 내방하여 선교문제에 대해 협의함.

- (1) 말루모 기독교 대학 설립을 위한 한국 선교부 측과 협의는 기독교 대학을 전후하여 맘본에서 갖기로 함.
- (2)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선교사 2명(신학교 전담, 교역자 훈련원 전담)을 파송한다.

- 기도제목 -

- 선교사 내외분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따님의 가정을 위해
- 첨가지는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위해
- 42개척의 개척교회와 새로이 시작하는 서부 뉴기니아의 이리안자얀 기독교단의 부흥을 위해

애굽(이준교 선교사)

- 아브틴 복음주의 애굽 현지인 교회 예배 인도
- 8월7일 자이툰 교회 대학 청년부 하기수양회를 7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중에 인도
- 8월9일 애굽 목사 하기수양회에 참석

- 8월24일, 25일(양일간) 헬완교회 장년부 하기 수양회 강사로 참석 말씀 증거

- 기도제목 -

- 선교사 내외분과 식식·석현이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 애굽 현지인 교회와 애굽학교를 위해
- 카이로 한인교회와 포트사이드 가정교회, 대림산업 현장에배를 위하여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 주일예배, 화요성경공부, 주간 성경공부, 구역예배등 은혜를 깨 진행중
- 9월 16일 박주석 집사 장립식을 기행할 예정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 영력있으며 성실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선교사가 되도록
- 자립교회 주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 더욱 많은 영혼 구원과 어린이를 가르칠 교사를 위해
- 예배장소가 좁아 어려움을 겪는 브루셀 한인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얻도록

서독(육호기 선교사)

- 경향교회에 직무하는 석원태 목사를 모시고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뮌헨북 한인교회에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비스바덴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짐.
- 8월 24일 서독 뮌헨스도르프 수양관에서 총회로 부터 파송된 노회 조직위원을 모시고 유럽노회를 조직하여 육호기 선교사가 초대 유럽노회장으로 선출됨
- 9월2일 리비아 주재 정윤길 선교사 가족이 방문, 특송과 리비아 선교보고를 하여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킴
-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대일 시가투스 목사가 방문하여 선교보고를 하심

- 기도제목 -

- 여행중이신 선교사의 남은 가족을 위해
- 부재중이신 미스바덴, 하나우 뮌헨북 세 한인교회를 위해
- 노회장에 선출된 선교사의 폭넓은 사역을 위해

칠레(유제일 선교사)

- 7월30일 칠레 한인연합교회새 성전 기공예배를 은혜중 마치고 공사를 시작함(현재 지하실

공사 끝냄)

- 8월12일 뽀디야고 중앙장로교회 극빈자 5명에게 구호 카드를 발급함, 대상자는 주2회 교회 청소 및 지역사회봉사를하기로 함
- 8월19일 선교부에서 이발소 및 빵 공장을 지정하여 5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함
- 8월26일 뽀디야고 중앙교회에 배후 축호전도를 실시
- 은혜중에 부흥하고 있는 뽀디야고 중앙교회는 9월중 여선도회를 조직할 예정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남미의 병들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 칠레 한인 연합교회의 새성전 건축을 위해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 7월1일 파라과이 장로교회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선교의 새장을 열게됨으로 현재 간접 지원교회 10개, 개척선교 1개처가 됨

- 기도제목 -

- 선교사와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 자녀의 학업을 위해
- 성도들의 총회와 교회증축을 위해
- 선교사업의 성공을 위해

일본(유병세 선교사)

- 8월12일 전도의 열매인 반목(盤木)부인(여62세)의 세례식을 거행함
- 8월29일 방학 중이던 이권사부인 성경공부반 개강에 전회원 참석함

- 기도제목 -

- 선교사 내외의 건강과 선교사명 감당을 위해
- 고국에 있는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인도(엘리야 겔간 선교사)

- 기도제목 -

- 인도의 원주민 복음전과 사업을 위해
- 엘리야 겔간 선교사 내외의 강건함과 아들 안드레아스를 위해

리성충현교회

- 기도제목 -

- 강성진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 틈사 충현교회의 주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박종철 목사 가족
사모 홍성애
장남 박근영

홍콩충현교회

- 8월21일 오치용 선교사 가족 무사히 홍콩에 도착하였음. 좋은 안식처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 8월26일 주일 예배시 이만열 목사 설교, 한경일 장로의 기도로 오치용목사 헌임예배 드림

- 기도제목 -

- 오치용 목사 및 가족의 건강과 선교사역의 성공을 위하여
- 이만열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한화 선교협회의 사역을 위해
- 홍콩 충현교회의 발전 및 지역 교회들과의 선교를 통한 협력 증진을 위해
- 홍콩 선교부의 중공 및 공산권 선교자료 수집 및 연구,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본부소식

- 8월20일 방문 중이던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 사무엘 요셉 목사 한국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출국함
- 8월21일 홍콩충현교회 탐입목사로 오치용 선교사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심
- 9월6일 뉴욕의 미주동부 충현교회 설립예배를 위해 최원영 집사 출국하심

- 9월7일 5교구 탐입교역자로 수교하시던 방동설 목사가 브라질 성도교회 사무장 가족과 함께 출국하심
- 예69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참석차 서독 육호기 선교사 9월13일 오후 4시10분 KAL 901편으로 일시 귀국, 9월16일 주일 4부 설교와 선교실태위원회 인사 및 선교보고함

교회 소식



■ 구역권찰회

- 추계대심방을 9월11일부터 실시했다. 전반기에 심방을 하지 못한 구역 및 세대를 이때 심방하며 대심방이 현재 완료된 교구는 5교구이다.
- 지난 9월22일(토) 오후 3시에 교구 운영위원 연합모임이 교육관 414호에서 있었는데 이모임에서 교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되었고 전도대 조직 및 기타보고서 작성에 관한 것들이 주지되었다.
- 제2차 구역축호방문전도를 10월5일(금) 오전 10시30분 본당 예배실에서 있었다.
- 10월7일 주일은 구역총동원주일로 지킨다.
- 제4차 성례식이 아래와 같이 거행된다.

일 시

1) 문 답

10월11일 오후 4시 - 9시

10월12일 오전10시 - 오후5시(유세 오후 2시까지)

2) 세례식

유아세례 : 10월12일 오후 2시

장년세례 : 10월14일 주일 1, 2, 3, 4부 대예배시

대 상

유아세례 : 출생한지 만2세 미만의 유아로써 부모의 신앙적합의가 있어야 함

학 습 : 교회 출석한지 6개월이상된 만14세 이상 되신분

세례 : 학습 서신지 6개월 이상 경과된분

입 교 : 유아 세례받고 만15세 이상 되신분

- 직장전도교육부는 9월30일(주일) 잠언 1장에서 3장을 본문으로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다. 또 10월14일(주일)에는 신앙서적 독후감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 전도위원회

● 제2 남전도회 동정

제2 남전도회(회장; 박치민 장로)에서는 8월19일(주일) 지교회인 서현교회(강원도 인제)에 의료전도단의 협력을 얻어 의료전도 진료를 실시하였다. 수혜자는

181명으로서 내과 49명, 외과 52명, 산부인과 6명, 피부과 18명, 치과 21명, 한방과 35명이었음. 제2 남전도회에서 18명, 의료전도단에서 14명이 참석하였다.

● 여전도회 수양회

여전도회 수양회가 8월9일(목) ~ 11일(토), 2박3일 동안 충현 기도원에서 배순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3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여전도회 동정

□ 한나여전도회 2지회는 지원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여름성경학교 첫날인 8월20일(월)에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였다.

□ 한나, 에스더 8지회는 9월19일(수) 원호병원에서 전도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한나연합회에서는 9월9일(주일) 추석을 맞이하여 남한산성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들을 위로, 전도방문했다.



사진 : 70인 전도요원훈련 개강

● 제3기 70인 전도요원훈련 개강예배

9월13일 제3기 전도요원 훈련 개강예배가 교육관 201호에서 이양우 목사의 설교로 있었다.

11월 1일까지 교육관 201호에서 실시된다.

● 금융기관에 「월간충현」 비치

8월27일(월) 소망부 전도대원들을 통해 강남구 지역 금융기관 50개소에 월간충현 7·8 월호를 비치하였다.

● 전도지 제작

전도지 10여종을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전도지가 필요하신 분은 선교관 401호 전도위원회로문의바람.

■ 교육위원회

● 주교실무자 간담회

9월15일(토) 오후 5시30분 주교지도와 부지도 부장단이 참석하여 「주교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여름계절학교 종합평가 후에 각 부(I II III IV)로 나뉘어 85년도 사업계획 및 제반사항을 놓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45명이다.

● 제5회 가정을 위한 특별강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

주일학교 새가정부가 주최하는 「가정을 위한 특별강좌」가 지난 9월 27~29일 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매년 1회 실시하는 본 강좌는 금년이 5회째로, 강좌를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경건하고 바른 가정에 대한 바른 생각을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금년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인의 가정」이란 주제하에 손봉호 박사(영동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 옥한흠목사(사랑의교회)의 「성숙한 부부관계」 이태웅박사(여의도 침례교회)의 경건한 자녀교육에 관한 강좌로 실시되어 교회 내에서 850여명의 교우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고등부는 10월 6일 오후 5:00에 선교음악회를 갖는다.
- 어린이전도집회가 (10월11(목)~13일(토)에 김연이전도사(소년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된다.
- 각 주일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특별훈련」을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본당 101호에서 갖게 된다.

● 거아도 어린이 초청

본교회 주일학교 대학부는 본교회 위탁교회이자 대학부와 한나 1지회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아도교회의 어린이 22명과 전도사 교사 각 1명씩을 초청하여 10월 5일~8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초청행사를 갖는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서울시내 주요기관과 신문사 및 방송국 견학, 본 교회 소년부와 초청한 부서인 대학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거아도는 충남 서산군 남면 태안반도 부근의 낙도임. 거아도 대부분의 어린이가 주일학교 학생이므로 어린이를 통해 부모를 전도하여 거아도 복음화를 시도하고 있다.

■ 토막뉴스

● 김창인 목사 동정

성전건축 비상기도회를 인도하신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9월11일 오후 8시50분 비행기로 미국

의 지교회방문과 부흥집회 인도차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 육호기 선교사 일시 귀국

지난 9월13일 오후 4시30분에 서독주재 육호기 선교사께서 총회 참석차 일시 귀국하였다.

● '85년도 봉사위원회 신설

1985년도 신설위원회로 봉사위원회가 발족됩니다. 따라서 본교회 교인으로 구성되는 자원봉사대가 조직되게 됩니다. 전교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봉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상자 / 전교인
- ② 제출처 / 사무국(교102) 구역권찰회(교109)
- ③ 제출마감 / 10월28일(주)

※ 지원서 양식은 교회 요소요소의 함에 비치해 있습니다.

● 목사 안수식

지난 9월 27일 독산동 소재 남문교회에서 본교회 교역자인 정관호 강도사(교육위원회 주교담당)와 김성주 강도사(충현 세계선교회 부지도) 그리고 전 기회조정실 부실장이었던 정은표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세분 외에 8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합동신학 2회 출신인 세분의 목사안수는 강남노회에서 주관하였다.

● 장학금 수여식

장학회에서는 84년도 하반기장학생을 선발하여 9월30일 주일저녁예배시 전달하였다. 이날 출타 중인 당회장 목사를 대신하여 수석 부목인 장정일 목사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시

편 30:23, 24 말씀을 주어 격려하고 천국일꾼양성을 위한 본 교회의 뜻을 숙지하여 학업에 정진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1. 총신연구원

김성운 남창우 송근호 오태용 최봉철 (지명위탁장학생·이창업장로) 박재호 이조웅 이원길(졸업학기) 김동렬(졸업학기)

2. 대학

강동호 이승수

3. 주교

(대학부)

김홍석 오수경 김춘배 (지명위탁장학생·삼성구역 여집사 2인)

(고등부)

김승태 김양선

(중등부)

이재욱 최윤호

4. 교역자

장정일목사(아세아연합신학원 목회학박사과정) 최봉호목사(아세아연합신학교 선교학석사과정) 조준상목사(웨이스신학서울분교 목회학박사과정, 북한선교훈련원 지명위탁장학생) 한영철목사(총신 계절목회 신학원)

5. 해외유학

성주진강도사(영국트리니티대학 철학석사과정) 김성호전도사 성주진강도사 영국 트리니티대학 철학석사과정 김성호전도사(미국 워싱턴신학대학 신학과정)

6. 교역자 자녀

(대학)

김성욱 이현이 덕한용관 한해관 홍미라 홍경숙

(고등)

한혜은 윤성기

(중등)

김성욱 김영민 조성희 조한국 윤혜신 윤혜실 김현정 이미라 박삼엘

7. 직원 자녀

(대학부)

정갑용 한득순 박용인 동성운 조규완

(고등부)

이주은 정월용 한덕성 임종선 박용현 김연경 정치용 이미리

조우숙 동성욱

(중학부)

임삼녀 김주경 김진옥 김경옥 이주향 송현기 이미영 장철 김혜경 조문경 조문숙 홍지표 이재욱

8. 농어촌 지교회 교역자자녀

장혜진(제1남선교회 지명위탁 성적우수 장학생) 오민택(제2남선교회 지명위탁 장학생)



◇ 이승근 목사 동정

도미유학중인 이승근 목사는 미국 웨이스신학교에서 5월 21일 「방언의 성경적 의미」라는 논문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각 종 통 계

1984. 8. 26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일	1부	240	460	700	총 세대수	5,135			
		2부	640	1,340	1,980					
		3부	470	900	1,370					
		4부	450	700	1,150					
		소계	1,800	3,400	5,200					
주일 저녁			270	520	790			교인	남	4,755
삼일 저녁			180	370	550				여	6,379
주일학교	영아부	234	213	447	신 급 별 교 인 현 황	총 수	계	11,134		
	유치부	166	168	334			세례	남	2,722	
	유년부	156	159	315				여	4,018	
	초등부	160	187	347			입교	계	6,740	
	소년부	206	194	400			유아	남	574	
	중등부	216	214	430				여	466	
	고등부	136	148	284			세례	계	1,030	
	대학부	75	86	161			학습	남	334	
	청년부	76	71	147				여	490	
	중년부	19	60	79			교인	계	824	
교	장소	44	276	320	원 입	교인	남	1,125		
	장소	49	142	191				여	1,405	
	직장전도교육부	30	68	98			교인	계	2,530	
	새가정부	40	51	91						
	장년새신자부	59	101	60						
	새례부	31	61	92						
합계			3,947	6,489	10,436					

7, 8월의교우동정

● 새교우

1 교구

정 담 3	한상목	대 지 1	최영자
개포 5-1	박준성	은 마 1	조경식
역 삼 6	엄미경	역 삼 4	여미숙
역 삼 5	심호섭	역 삼 4	안영미
역 삼 4	박준규	역 삼 4	이병익
논 현 6	김춘화	역 삼 5	이길여
역 삼 6	방원철	논 현 5	장미교
논 현 9	최은호	역 삼 4	이경희
역 삼 7	신선애	역 삼 9	박명자
역 삼 6	송월여	역 삼 6	박금순
은 마 3	임나미	영 동 3	김신자
개 포 4	이원옥	개 나리 3	이기복
개 나리 4	김문수	역 삼 5	이정복
개 나리 4	정양희	역 삼 7	유순자
역 삼 7	김연자	신 사 5	김순자
영 동 5	전미자	개 포 5	김순자
논 현 8	김은경	논 현 15	김송년
역 삼 7	이정옥	영 동 5	백광희
역 삼 4	이형수	진달래	최주옥
역 삼 7	김수남	삼 성 2	윤재형
역 삼 7	이경진	논 현 11	이평진
역 삼 7	은진표	역 삼 4	오진선
대 지 1	장복순	역 삼 9	백정숙
역 삼 4	로빈훗	논 현 15	김춘자
역 삼 1	고수옥	역 삼 5	김동숙
쌍 용 1	강영희	개 포 5	이성익
은 마 2	박천인	대 지 3	박대희
개 포 3	신화문	개 포 1	차광숙
개 포 3	주순정	개 포 5	김철동
역 삼 9	신용묵	논 현 13	김정순
역 삼 4	김순란	대 지 1	이윤선
미 도	이태엽		

2 교구

방 배 10	이정희	방 배 10	문정순
방 배 2	남궁성탁	잠 원 6	노명숙
신 사 5	배봉식	반포 15-1	한정혜
신 사 5	강금옥	방 배 5	정경만
서 초 16	김윤창	신 사 2	천성우
잠 원 5	윤용복	신 사 2	장종선
성 남 3	권기자	성 남 3	길단순
성 남 6	김정숙	방 배 3	김진화
반 포 8	곽동주	압구정 2	한명희
반 포 6	최영숙		

3 교구

통 전 7	최주연	과 전 3	최영미
통 전 1	남궁영숙	통 전 1	박인순
과 전 4	이성훈	사 당 3	최영숙
신 립 7	정태순	보 광 3	박경찬
신 립 7	유보희	한 남 1	차금순
신 립 5	장혜순	정 파 1	민원식
신 립 8	이예순	신 립 6	김영화
과 전 2	박춘란	통 전 4	하재현
신 립 5	이학원	신대방 2	송중애
과 전 3	김혜련		

4 교구

부 전 5	정성숙	광 명 3	곽도영
동 존 1	유상기	신 길	박연순
동 동 1	홍순희	동 존 1	박미래
동 동 1	공재민	동 존 2	이형춘
화 국 1	김순심	광 명 1	백춘기
인 천 1	이규인	구 로 2	신상수
시 흥 3	김태순	개 봉 1	윤인숙
	이청경		

5 교구

갈 현 1	김경희	녹 번	조승민
대 흥 1	이윤희	역 존	김은배
갈 현 2	김미령	중 산	이석일
서 교	김성옥	공 덕	정재봉
성 산 1	안옥자	신 사	박경숙
홍 제 1	이민영	도 원 3	김경희
대 조	윤경중	구 산	유홍상

6 교구

길음 1-2	홍인근	월 계 1	김기태
정 능 4	송춘영	장위위 2	윤민재
월 계 1	강복순	쌍문 1-1	김양섭
정 능 4	송섭순	월 계 2	김영수
공 능	이영희	돈 암 1	황재정
삼선 4-5	김종세	삼 선 2	김정애
미 아 4	신경자	미 아 4	김용경
미 아 4	강정숙	미 아 4	황구순
미 아 4	강정숙	미 아 4	황구순
상 계 2	황춘연	정능 1-2	이성환

7 교구

연 지	신성자	면 목 7	이정숙
면 목 3	김현정	장 안 3	정재금
혜 화	최병세	정 진	홍연희

신 문	동창환	중 화 1	김경희
면 목 5	이진원	정 량 리	홍성은
정 량 리	김화자	중 로 1	홍성숙
평 장	이현철	면 목 1	김숙자
동 송 1	김정숙	동 송 1	우주연
구 리 1	박옥분	면 목 3	오경애
구 리 1	김남영	압 심 리 2	박훈택
면 목 7	한춘옥	면 목 2	황규정
면 목 1	김순이	면 목 4	정재복
면 목 1	이복순		

8 교구

전 호 1	김희태	가 락 3	서현숙
가 락 4	주연희	성 내 1	임남순
문 존 2	김기옥	잠 1-1	김연식
문 존 1	고종규	방 이	임선재
전 호 2	김애자	전 호 3	강승덕
성 내 2	이연실	가 락 2	김형근
잠 일 2	김말순	하 일 1	최정화
마 천	조금란	잠 2-2	박영자
잠 1-3	유성종	잠 1-3	박운정
삼 전	서금덕		

9 교구

자 양 2	이금남	자 양 2	김정희
구 의 10	김명철	화 양 2	지영미
화 양 4	고성숙	흥 익	이수원
성 수 4	유순자	행 당 6	권순임
행 당 6	정병관	흥 익 1	이용기
사 근 1	박성환	하 왕 3	김성남
화 양 1	손진숙	자 양 3	박효실
마 장 1	최경진	자 양 1	강순호
흥 익 3	이춘호	하 구 의 8	김소월
도 선 2	임선희	구 의 8	정점순
	정순자	옥 수 4	장현순

10 교구

필동 3-1	윤태준	황 학	송주은
신당 1-2	우경애	목 정 3	선성조
주 교 1	이창재	신 보	장명철
필동 3	안명숙	좌 4-3	이진자
주 교 1	조현순	신당 1-1	우경애

● 결 혼

- 우종근(창동구역)과 김명숙양(신정희 권사 딸) 7월 4일
- 조성현군(조규호씨 정정숙집사 아들)과 박천인양(성가대원 박시우씨 딸) 8월 3일
- 최경화양(최영권씨 최태옥집사 3녀, 1부 성가대원) 8월 1일

11월의 행사

□ 당 회

30일 / 정기당회

□ 제직회

4일 / 제직회

□ 기획조정실

18일 / 월간총현 발행

□ 구역권찰회

30일 / 구역축호방문전도

□ 예배위원회

18일 / 추수 감사절

□ 교육위원회 (성경연구원)

2째주 / 교사단기 훈련

● 별 세

- 강태웅 씨 (길동구역) 7월 2일
- 김세동 권사 (이병학장로 모친) 7월 5일
- 박도생 집사 (광명 3구역 장정예권찰사 모) 7월 7일
- 김진성 씨 (동송구역 이순옥 집사 부군) 7월 8일
- 이씨 (삼선구역 이정숙 권사 모친 김기정 장로 장모) 7월 10일
- 김수매 (삼익아파트 김정경 집사 김희자 권사 딸) 7월 23일

— 편집후기 —

새벽녘에 부는 바람이 선 잠을 깨우는 계절! 겨울이 멀지 않음이 피부로 새삼 느껴지는데 월간지의 면모를 다하지 못하는 「월간총현」이 9, 10월 합본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의식을 고

취시키고자 창글에서 온 선교사의 편지와 교구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글들을 중점적으로 실었는데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뜨거운 성원의 기도만을 바랄 뿐이다.

표지의 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총현의 식구들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하나로
더욱 굳게 뭉쳤다.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편집위원

장 정 일 조 현 명
김 수 성 이 형 수

월간 총현

1984년 9·10월호

제12권 7호 (통권123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4년 10월 5일 인쇄

1984년 10월 7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최석주

주 간 / 이성근

홍보출판부장 / 김광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665-1
전화 / 562-4181~5



사진으로 보는 뉴스

성전건축특별비상기도회

박문실 목사의 출국을 환송하는 교우들 84. 9. 7



성전건축 특별비상 기도회 84. 9. 5~8



소망부 하기 수양회 84. 8. 13-14



병원전도를 위한 간담회 1984. 9. 20 천교2층 403호

병원전도를 위한 간담회 84. 9. 20



영아부 계절학교 84. 8. 14~15



영아부 계절학교 1984. 8. 14-15

사랑! 믿음! 기쁨!

영아부 계절학교에서 설교하는 정준복 전도사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아 —

산을 옮길만한 힘이였으라./

술한

믿음의 불꽃들이

이글이는 하나의

용광로 되어

그 하늘문을 열었고

그속의 찬연한

절대자의 권능을...

무한한 기능성의

충현을 보았노라

× ×

대역사의 현장

특별비상 이라는 불티가

발등을 때릴때

힘 — 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삼킬세라

침몰할 세라

어쩌면

너스웨 성보다 더

절박함이어./

목놓아 함께 외쳤노라

여호와여 주시옵소서!!

채워 달라고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의 뜰안에

모인 양떼는

어찌그리도 하나였든지./

아 — 바울의

인내와 순종의 극치를 닮았어라./

종으신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셨아오니

영원에서부터

그 영원까지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 ×

지금은 겸허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한없는 잠재력을 잉태케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충복되게 하소서

또 다시

천상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부를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처럼 달려가리라!!

1984년 9월 25일

특별비상 기도회의 축복을 받고 고마우신 하나님께

한 영 성 \ 2 교구 신사 3 구역장